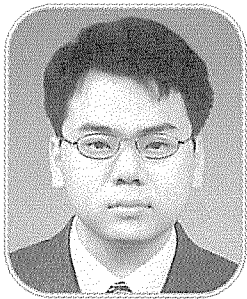


따라서 배우는 인터넷 이야기 (20)

-멀티미디어 인터넷 환경 만들기-



류지창 국장
(천리안 인터넷 방송국)

INTER
NET

얼마전까지만 해도 컴퓨터를 구매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것은 어떤 CPU를 사용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메모리와 하드디스크를 가지고 있는지의 두 가지가 모두였다. 여기에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모뎀을 사면 컴퓨터 구입에 대한 고민이 마무리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이 급속하게 우리 주위로 다가오게 따라 이제는 보다 더 많은 것을 컴퓨터 구입시에 고려해야만 한다. 컴퓨터를 새로 구입하게 되면 어차피 목돈을 쓸 결심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10만원 이내의 주변장치들을 함께 구입하는 것이 컴퓨터 매니아에겐 필수다. 나중에 따로따로 구입할 생각으로 미루어 두면 비록 5천원짜리 마우스라 하더라도 쉽게 구입할 기회가 잘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때 보다 편리한 인터넷 이용을 위해 함께 구입해야 할 품목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

1. 마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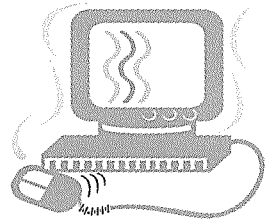
인터넷 쓰는데 특수한 마우스

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떤 마우스든 상관없지만 새로 마우스를 구입할 기회가 있다면 휠마우스(Wheel Mouse)를 구입하기를 권한다. 휠마우스는 마우스의 두 개의 버튼 사이에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는 작은 바퀴가 있는 마우스를 말한다. 이 바퀴는 컴퓨터의 스크롤 바를 대신한다.

가격대는 9천원~1만원정도이므로 일반 마우스와 1~2천원 정도 차이가 난다.

2. 스피커

이제 스피커는 컴퓨터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인터넷을 통해 인터넷 방송을 청취하거나 MP3파일을 감상할 때 혹은 컴퓨터로 음악CD를 감상할 때도 좋은 스피커가 있어야 깨끗한 음질을 즐길 수 있다. 최근에는 모니터에 스피커가 붙어 있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별도의 스피커를 갖추기를 권한다. 컴퓨터용 스피커는 가격대도 다양해서 2만원대에서 10만원을 넘는 것들도 많다. 가능한 한 좋은 기종의 스피커를 구입하기를 권한다.



3. 랜카드

예전에는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모뎀만 갖추면 모든 준비가 끝났었다. 하지만 최근에 다양한 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이제 모뎀의 시대는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컴퓨터를 구입할 때 어떤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할 것인지를 미리 검토해야 한다.

하나로 통신, 두루넷 등의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케이블 TV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방송용 케이블을 인터넷 전용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랜카드가 있어야만 연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뎀을 구입하면 예산 낭비가 되기 때문이다. 랜카드도 가격이 무척 다양한데 3com의 랜카드가 우수한 평을 받고 있으며 주로 대만제인 저 가격대의 랜카드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다.

가격은 3만원대에서 10만원대까지 다양하며 가능하면 A/S가 잘 되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4. USB 카메라

최근 새로 나온 컴퓨터 잡지들을 뒤적여 보면 몇 달 사이에 컴퓨터에 연결할 수 있는 소형 카메라 광고가 무척 많이 늘었음을 알 수 있다. USB라고 불리는 포트에 꼽아 사용하는 이런 카메라들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화상

채팅이 붐을 이루면서 무척 많이 팔리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를 새로 구입할 때 한번쯤 구입을 고려해 볼 만한 품목이다. 이 카메라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대의 얼굴을 카메라를 통해서 보면서 채팅이나 게임을 즐길 수 있다. 가격은 아직은 조금 비싼편으로 10~20만원의 가격대를 보이고 있다.

5. MP3 Player

MP3 플레이어는 카세트나 CD 대신 MP3라는 파일 형태로 저장된 음악을 재생해 주는 장치다. 이 장치는 사실 컴퓨터의 주변장치라기 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휴대용 음악 플레이어 혹은 새로운 세대의 워크맨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 플레이어는 컴퓨터에 연결하여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MP3파일을 복사해 올 수 있는데 이렇게 복사해 온 파일을 언제든지 음악을 즐길 수 있으며 자동차의 오디오와 연결해서 운전중에 음악을 즐길 수도 있다. 음악 매니아라면 구입을 고려해 볼 만한 품목으로 최근 저가격대의 신제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으며 12~30만원대의 가격대를 보인다.

6. CD-Writer

CDR이라고 불리는 CD-Writer

는 이름그대로 컴퓨터용 CD-ROM을 만들 수 있는 장치다. 흔히 공CD라고 불리는 매체를 이용하여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파일을 저장할 수도 있으며 음악 CD도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직접적인 인터넷 이용에 이용된다고 보다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은 많은 자료들을 쉽게 저장하고 보관할 수 있어서 무척 편리하다.

가장 단 시일내에 컴퓨터의 기본 장비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얼마전만 하더라도 60~70만원대의 가격이었으나 최근 50%가까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지금 컴퓨터 구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CD-Writer만큼은 반드시 같이 구입하기를 권한다.

E-IDE방식과 SCSI방식이 있는데 조금 비싸고 또 SCSI 카드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기는 하지만 SCSI방식이 아직 많이 쓰이고 있다.

이 외에도 새로운 천년에 컴퓨터에 추가될 부품 혹은 장치들은 무척 많다. 물론 이런 것들을 모두가 구입하는 것은 낭비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 하나 꼼꼼히 생각해 보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은 컴퓨터를 구입할 때 함께 구입하는 것이 부담이 덜 된다. 국민PC 보급과 함께 컴퓨터를 새로 사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 이때 남들보다 훨씬 더 재미있고 다양하게 컴퓨터를 쓸 수 있는 이런 주변장치들도 함께 구입하는 것을 고려해 보기 바란다.